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3. 겨울(Winter)



알려드립니다

달력제작 하지 않음.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중립 실천 동참을 위해 2024년 달력은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연동

23년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보내드리지 작성하여 핸드폰을 찍은 후 담당자(금 베로니카 수녀, 010-2821-8174)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수도회 수련 자매들을 위해.... (신지호 멜라니아)

9월 29일 필리핀 아시아 국제 수련소에서 수도권 수련자 축일에 수련자로 착복 식을 하고 수련을 시작하는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합류한 신지호 멜라니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최 수란 레지나 수녀님을 위해.



교황님의 지향과 일치하여....

권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향하여 다국간 공동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정치적 변화를 통해 전쟁과 환경 파괴의 어두운 밤을 새롭고 빛나는 날이 여명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함께 협력하여 봉사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새로운 조직 변화

한국에서 관구로서 탄생, 성장하여 65년 동안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여정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부터 전 세계의 우리 수도회의 조직이 지역(Region)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월 9일 후원자, 영적 가족,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한국 관구 폐막 미사를 봉헌 하였고, 한국 관구는 홍콩, 마카오,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삼위일체 지역(Trinity Region)으로 새롭게 조직되어 지역평의회와 지역장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평의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이민족 사이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용기와 내면의 힘을 토빗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충실한 남편이며 인자한 아버지인 토빗은 고향에서 멀리 추방되어 불의를 겪고 임금에게 박해당하며 이웃에게 냉대받았습니다. 그토록 착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시련에 놓였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가르치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의로운 이들에게 시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에 토빗은 자신의 가난을 발견하고는 가난한 다른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법에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을 직접 느꼈기에 실제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하고 아들 토비아에게 전하는 말은 그의 참된 유언이 됩니다. 곧,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특히 섬세하게 헤아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풍족한 생활양식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지지만,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무시 당하곤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5-37 참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 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마다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자선 을 베푸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위탁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선을 베풀도록 성금을 내는 것도 관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자선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한 이들과 배척받는 이들을 돌보는 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와 각계각층의 그들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초인적 영웅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 곧 스스로 묵묵히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경청하고, 관계를 맺으며, 가난한 이들의 처지와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필요는 물론 영적인 필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개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하여 힘씁니다. 이 관대하고 이타적인 봉사로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고 드러납니다.





복1) 받는 길

김영선 보나. FMM 영적가족 10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알게 모르게 원하던 것을 하느님이 주시는 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잘 다듬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을 찾아 알아가도록 영적 필요를 자극해 주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충분히 복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주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돌려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세상사는 메아리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이치에 맞고 좋은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대신 화가 돌아온다는 말이겠지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 어디서 우연히 오거나, 누군가 무상으로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있어 수동의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 복이란 어떤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 생기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혈우병이 있는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청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받고 사는 것이 인생사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오늘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생각과 행동이 쌓여 오늘을 만든 것이며, 오늘의 생각과 선택, 태도가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기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는 오로지 본인 선택에 달린 것이지요.

제 나이대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우를 겪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시기가 있었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테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조연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인격이나 성격, 생각과 판단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며 실수와 잘못투성이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은 하느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서를 통해 저의 부족한 면을 비춰보며 저의 한계를 견디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소박한 결심이 오늘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 없이 현재를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며 삶이라는 도화지에 저의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1) 복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혹은 생각지 못한 것을 합당한 행위의 결과로 얻거나 이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 FMM 후원자 소식지에 글을 싣도록 권유받을 때는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며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과 저의 삶에 대해 감사와 긍정의 시각을 갖게 되었지요. 이처럼 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누려온 많은 축복을 더듬어 가며 하나하나 헤아려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내려 주시는 선물로, 그 선물에 대해 갖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시편 제1장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시편 1, 2~3)



2023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대림 1주 보라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 님. !!
올해 대림은 특별하게 주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꼭 행복한 일 한 가지를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복이 나에게서 내 가족으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출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치유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아가로 태어나실 우리의 하느님을 기다려
봅니다.



금베로니카 수녀드림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924-12-128577

예금주 : 김정례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osp@hanmail.net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희망을 지피는 나눔 후원회)

“희망을 지피는 나눔”은

FMM(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사도직과 선교 양성을 돕는 후원회입니다.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준수하며, 희망을 지피는 나눔 후원회원들 관리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 등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성명/세례명:

생년월일(축일):

주소(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연락처(휴대전화) :

이메일 :

*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실 분만 표시해주십시오.

▣ 수집 및 이용목적

후원자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정보제공 후원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회원 회지, 간행물 및 지로용지 발송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 성프란치스코수녀회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기록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후원회 담당자 카톡 (010-2821-8174)으로 보내주십시오.

구유 앞에서

신앙없이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가시여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소서.
손님 아닌 주인으로
당신을 맞을 마음의 방에
어서 불을 켜게 하소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 대신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욕심의 비늘 번쩍이는 어른 옷 대신
티없이 천진한 아기옷을 입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해인